

조선과 일본의 소통 수단, 통신사

문화적 측면에서 본 통신사와 현재적 의의

조선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즉 13~16세기에 삼남지방을 극심하게 괴롭히던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침을 마련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이었다. 특히 1590년 즈음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전국 통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여, 왜구 침입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정찰을 시도했다. 이후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진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도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 파견을 끊지 않았는데, 이때 파견된 통신사의 주 임무는 일본의 재침 의사가 있는지 정찰하는 것이었다. 이때 뜻밖의 수확으로, 전쟁 때 잡혀갔던 조선 포로들을 쇠환하고 일부 조선 유물을 되찾기도 하였다.¹⁾ 이렇듯 정치적 목적으로 파견되었던 통신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화적 교류의 의미가 두드러졌다. 당시 일본과 조선은 오가며 직접 두 나라의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통신사였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 문화의 장점을, 일본은 조선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소위 win-win의 관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 최초로 파견된 통신사의 정사인 박서생은 사행 이후 수차 개발과 화폐 사용 등을 건의했다. 수차는 과학·기술적으로, 화폐 사용은 사회·경제적으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조엄은 통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일본에서 조선 백성들을 위해 구황작물로 고구마를 들여왔다. 이들 외에도 조선과 일본의 여러 의원들은 문답을 통해 조선의학과 일본의학을 교류하여 양국의 의학 수준을 크게 높였으며, 미술 작품과 무예 등 다양한 문화를 새롭게 접하며 통신사 파견을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통신사 파견에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태문은 “한 지역에 통신사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 머무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접대가 문제였습니다. 소요되는 경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략) 전체 통신사 사행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통신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리를 대접하는 부분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사가 부산에 와서 머물 때는 경상도의 군현 70여 개 고을에서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백성 입장에서 통신사의 여정이 국가 관료의 행차이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컸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큰 사회적 비용이 아니었다. 통신사 파견 덕분에 국가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훈은 “명·청 교체라는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처하기 위해선 일본 쪽의 긴장을 높이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일본과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왕권의 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통신사가 파견된 배경과 현대는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 당시 왜구의 침입, 임진왜란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불안정할 때 조선의 통신사를 통한 문화 교류로 양국이 약 260여 년간 평화를 유지했던 것처럼, 현대에도 양국의 관계는 그때와 유사하게 아슬아슬하다.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5년 한일협

1) “조선의 문화·외교 사절단”. YTN 사이언스. (2015.6.22.). <https://www.youtube.com/watch?v=Xwf2GGPuZa4>

정을 체결했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 없는 언행으로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일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현대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쟁의 위기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통신사였고, 이 점이 일본과의 외교적 단절만을 외치는 현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